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7월 13일 (제 1314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사랑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른 건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과 권력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더는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 곧 ~ 때문에 사랑'은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이 끝나면 배신하게 되어있다. 가룟 유다처럼. 이혼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표면적 이유가 어땠든 결국 ~ 때문에 사랑'이 이유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빠서 사랑하고,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 불구하고'의 사랑, 곧 사랑해서 필요한 경우는 실령 죽음이 온다고 해도 갈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편이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되어 모든 수발을 들어줘야 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집사는 말한다.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들 말하지만, 저는 병든 남편이라도 내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필요한 것일까,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일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주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필요한 것을 바로 안주시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필요로 하는 자가 되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8:35)라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라는 말씀이 이뤄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라

미국 텍사스(Texas)주의 인구는 대략 3,100만 정도로 추산한다. 그중 스페인어를 말하는 히스패닉(Hispanic) 인구는 천만이 넘는다. 히스패닉 중에도 멕시코(Mexico) 출신 인구가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미국에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는 멕시코 마따모로스(Matamoros)에 이어 멕시코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McAllen)을 찾았다.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육로를 통해 이민국을 통과하여 차로 약 1시간을 달렸고, 매캘런 공항 근처 미션(Mission)이란 도시에서 묵하고 있는

처음 이번 6월 집회를 준비하며 헤라르도 목사는 멕시코와 미국의 두 도시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현지 정보를 알아보니 마따모로스의 날씨가 40도를 넘나드는 고온다습한 지역인데다가 야외집회로 진행된다 하여 우리는 일정상 너무 무리하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통역을 담당해야 할 이현숙 선교사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미국 집회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통보했다. 그런데 아마도 헤라르도 목사는 미국 매캘런 집회 주최 측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비용도 제공 받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목사가님 뜻모신다 하자 헤

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타벨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만은 목사님이 꼭 오실 줄 믿고 있었다며 기뻐했고, 전기 사고로 충격을 받아 걷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매캘런 집회에서 그를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응답해주셨다.

일정상 화요일 오후에는 매캘런을 떠나야 했기에 월요일 세미나와 집회만 진행하기로 했으나 목사님께서는 화요일 오전 세미나까지 해주고 떠나시겠다고 헤라르도 목사에게 말했다. 그는 아주 뿔뿔



2025 미국 매캘런 집회(텍사스주 미션센터)

호르헤(Jorge Alberto) 목사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이번 집회에 우리 일행이 머물게 될 숙소로 자신의 집을 통째로 내어 주었음뿐 아니라 아침 및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주었다.

오후 늦게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라르도(Gerardo) 목사가 꼭 가보셔야 할 곳이 있다며 목사님을 재촉한다. 멕시코 집회를 힘겹게 마치고 이동한 터라 이튿날 일정을 위해 좀 쉬게 해주면 좋으련만 헤라르도 목사는 어떻게든 목사님을 끌고 다니려 골몰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시 외곽에 텐트를 치고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길을 나서야 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동안 저간의 사정을 듣게 되었다.

라르도 목사에 대해 사기꾼이니 하며 온갖 비난이 빗발쳤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상상이 갔다. 끝탕을 하며 기도했을 터, 거기에 도시 외곽에서 천막기도회를 이끄는 크리스타벨(Cristabel) 목사는 이번 집회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가운데 '내 종 이초석 목사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천막기도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장소에 목사님이 나타났으니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가늠이 될 것이다. 마치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 마리아 집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가 정작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계집아이의 말에 '네가 미쳤거나 그의 천사겠지'하며 믿지 못했던 사도행전 12장

이 기뻐했다. 코로나 때 죽었다 살아난 그는 여기 말고도 이미 열 군데에서 목사님을 모시려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열정을 보였다. 목사님으로서 몸이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는 그의 모습에 크게 기뻐하셨다.

목사님은 집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시고, 이틀간의 오전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성경적 노하우를 성경을 찾아가며 자세히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매캘런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



천막기도회를 이끈 크리스타벨 목사 부부



집회에서 일어나 걷는 크리스타벨 목사의 남편 살로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28:1~15)

남을 도와주면 내가 윤택해진다

‘한 손에는 능력을, 한 손에는 구제를!’ 2050년까지 향후 25년을 계획하면서, ‘과연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신 것이 하나의 명령이요,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15:11)는 것이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을 받잡아 70이 넘는 나이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153구제운동 사단법인을 만들어 153구제운동(153 Rescue Movement)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53 AID를 통해 조용히 구제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 구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153구제운동’은 요한복음 21장을 근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웃 배를 불러 서로 나누었습니다. 곧 ‘153구제운동’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자’는 운동입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제 결정에 어떤 이는 “서울교회도 아직 못 지었는데 무슨 구제를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です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5:10).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남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내 손도 깨끗해집니다.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같은 이치로 남을 풍족하게 하면 나도 풍족하게 됩니다. 왜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눅12:33)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제하면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고, 영풍한 곳으로 새지 않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목회 초기부터 전국과 전 세계에 오디오 테이프는 물론 비디오 테이프까지 무료로 나누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해외로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보내려면 거의 10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우리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무료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 교단의 세계 복음화에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함이 없

습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 했는데 누가 그걸 막겠

습니까 (민 23:19~20)?

성경에는 구제함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식민지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의인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유인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짚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노인과 과부에게 많은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자 그곳의 제자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받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구제를 하는 자가 받는 축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고맙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구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제재가 가해지는 법,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

가 네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

왜 이런 심판이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25:40~45).

그렇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니 영생과 영벌이 각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값아 주시리라”(잠19:17)고 말씀하시며, 구제에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색함과 절약은 다르다 인색한 자는 부모도 싫어한다

여러분, 구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지 못해서 배가 등에 붙었는데, 그들에게 ‘배부르라’고 말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헐벗어서 몸이 얼었는데 ‘더웁게 하라’ 하면 더워집니까? 라면이라도 먹어야죠. 겉옷이라도 벗어 덮어줘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7~18).

하나님은 원수라도 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하셨는데(렘 12:20), 없어서 못 먹고 마시는 자에게 어떠한 하신겠습니까.

그리고 구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2). 사람들 보라고 떠벌리며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보시게 은밀히 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밀히 복을 주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3~4).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그러니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도록 구제에 힘쓰며 경건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인천교회 광이레 전도사 간증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일을 보고 아버님 댁에 갔는데 아버님 혼자 저녁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왜 혼자 식사하세요?” 물었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가 이 시간에 어디 갔겠니? 저녁 기도회 갔지.” 하시며, “내가 저녁밥을 20년 동안 혼자 먹는다. 내가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네 엄마 쫓아냈을 거다.”라며 반은 투덜거리시고, 반은 어머니와 당신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날 그렇게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또 인천의 어느 전도사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편에게 쫓겨나서 기도처에서 며칠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때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결국은 허락한 것이다. 대부분의 여전도사님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남편 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사역을 허락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크고 넓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채찍에 맞으시

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겠는가. 찬송가 404장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가사처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존재이다(마 5:13~16).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하셨지 않은가(요일4:7~8).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다. 저 연세에 지구 반대편인 중남미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이번에도 멕시코 마따모로스 집회에 다녀오신 후에, “내가 돈을 준다고 하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라도 다니는데,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먼 곳을 다녀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분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농친 고기에 미련을 버립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강가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큰 고기를 낚았지만, 줄이 끊어져 놓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게 강물만 바라보던 그에게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농친 고기에 미련을 두지 말게. 강물은 이곳에만 흐르는 게 아니지.”

남자는 무릎을 ‘탁’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위쪽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내 더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낚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놓아야 다가올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진리네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명문대를 자퇴한 뒤 은둔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드문드문 교회에 나가던 중, 당시 대구 교육국에 전도사로 부임하신 이월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기타와 방송을 배우며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점차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는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4번의 낙방 끝에 깊은 좌절을 겪었고, 한동안 교회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풀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길을 여쭙어보렴.”

그는 3일 금식을 결단했고, 첫날 밤에는 자신이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꿈을 꾸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내 발을 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며 권면하셨고, 때마침 7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신학교에 입학해 지금은 생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청년이 과거에 얽매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을 향해 힘껏 달려갑시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김진실 사모

pupu519@naver.com

그때 너를 보았노라

“First impressions are very important!” 총회장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울예수중심교회의 첫인상을 가늠케 하는 분들이 있다. 성전 입구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성도들을 맞는 안내위원들이다. 계절에 맞는 화사한 한복 차림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성도들을 맞는 안내위원들은 우리 교회의 꽃이다.

사실 이 고운 자태 뒤에는 엄청난 수고가 숨어있다. 겨울에는 입구인자라 칼바람에 발이 얼고, 여름에는 겹겹이 입은 한복 덕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날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라.

어디 한복을 입은 안내위원들뿐이라. 자동차의 엄청난게 많은 부속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완수하기에 안전하고 빠르게 달리듯,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각기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기에 예수중심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중심편집실

그들 누구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 누구도 힘들다고 불멘소리를 하지 않는다.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자원하여 묵묵히 내 일에 충성할 뿐! 그날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겨울철 새벽부터 차량 안내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자비량으로 한복을 지어 입고 안내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아름다운 꽃으로 단 봉사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헌금위원으로, 성가대로 봉사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어린이들 소대변을 맡아가며 예수를 전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이것이면 족하지 않을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무엇을 더 바랄까.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 소망의 언덕 ::

예수 이름은 마스터키다

최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실제적이고 놀랍게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려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기 직전,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액셀을 밟아도 공기만 헛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속도가 점점 줄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를 다녀온 터라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 시간에 차를 세우고 택시를 잡기도 어렵고,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지만, 곧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다.” 그래서 저는 차를 도로 한쪽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핸들에 안수하며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차는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그 순간, 믿기 힘들 정도로 차량은 점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고, 이전의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무사히 새벽기도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로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맡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위에 명령하며 전대미문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귀를 기울이세요 ::

믿음의 유통기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옆에서 두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만약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을 몸소 체험했다면 지금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살면서 받은 응답이 넘치는 데도 새롭게 생긴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던 때 마가복음 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썩 짝지어 마을로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친 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내용을 낱낱이 고하죠. 분명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자신의 손으로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깐요. 예수님은 온종일 사역하느라 녹초가 되었을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많은 무리가 뒤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달리고 달려 배보다 먼저 도착했죠. 목자 없

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 저녁을 사먹게 하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수중에 떡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시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모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남았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남자만 오천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뱃새다로 가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몇 시간 뒤 새벽바람이 세게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배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예수님이 진정시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우리 마음은, 이토록 쉽게 둔하여집니다. 허무할 만큼 연약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

깁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하룻밤도 못 가 마음이 둔해졌죠.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어. 낮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각색 병을 고쳤으면서도 새벽에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의 유통기한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1년 뒤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오늘은 굳건하나 죽을 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죠. 믿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같고 닮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오늘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방언기도를 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려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공예배 때만이 아니라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산책길에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물 위로 기뻐 뛰어나가 예수님을 껴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신은혜

Good New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사나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으며, 시력도 형편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있었고, 그 길을 찾기 위해 아무런 힘이 없었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을 입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최악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 멀

리 떠나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결단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복음의 통로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 가족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기도 하고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여나 내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꺼리지는 않을까 마음을 줄이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주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최선을 다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친구 앞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의견을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들만한 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내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더 바른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은 피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거리가 되는 것을 만들고 싶지 않

아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전대미문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복음의 통로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현실의 벽이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즉시 순종!

최근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성도님이 계신다. 이 성도님의 사무실이 노량진 교육관 근처라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사무실 입구에 누가 봐도 수수한 모양의 손수 제작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원래는 이 문에 '아름다운 미'가 붙어있었는데, 최근 총회장 목사님께서 사업장마다 '십자가 붙이기 운동'을 하라고 한 직후, 성도님은 손수 제작한 십자가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와~ 성도님이 엄청 행동력이 빠르시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뛰든지 빨리야 사업에 성공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십자가를 달아야지'라고 모두 생각했지만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이것이 바로 실행력, 실천력의 차이인데, 세상의 부자들들과 성공한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을 '즉시 실천', '즉시 순종'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세리마태는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세금 정리하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 바울은 회심한 후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 정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전해 듣고 아침에 즉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 즉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 또한 내 지금 상황, 내 문제, 내 환경 등을 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표현이자 용기 있는 결단인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고 말하며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초고속을 넘어 AI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실천은 조선시대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는 이들이 많다. 순종은 타이밍이다.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하여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자!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전국 연합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8(월)~30일(수)
청년대학부 7월 31(목)~8월 2일(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